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자본의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ultural Arts Activities and the Role of Cultural Capital

김현진¹, 김연희^{2*}

Hyun-Jin Kim¹, Yeun-Hee Kim^{2*}

요 약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경제 자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계급 구분에 적용하기 위해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문화 자본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류계층은 고급문화를 소비하며 하류계층은 대중문화를 소비함으로써 문화 자본이 은밀한 차원에서 계급 재생산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일치하는 문화적 취향을 갖는다는 상동성 가설이 미국 사회학에 유입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프랑스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에서는 문화 자본이 높을수록 배타적으로 고급 문화를 소비하기보다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잡식성 문화 소비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 자본의 상동성 가설과 잡식성 가설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문화자본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어 : 문화예술 활동, 삶의 질, 문화 자본, 상동성 가설과 잡식성 가설

Abstract

Pierre Bourdieu, French sociologist, suggested the concept of cultural capital to apply it to hierarchical classification which is difficult to explain with economic capital alone. Cultural capital can be defined as the degree of which members or groups of a society possess the ability to recognize or enjoy cultural elements that are highly valued in the society. According to Bourdieu, the upper class consumes high quality culture and the lower class consumes popular culture, so that cultural capital continues class reproduction on a covert level. However, the homology hypothesis that people have cultural tast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ir social class goes through a change in American sociology.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from Franc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ultural capital, the more omnivorous cultural consumption pattern occurs, which consumes various popular cultures rather than exclusively consuming high-end cultures. Many similar results have been reported in domestic studies as

1 Department of Arts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jinnyten23@naver.com

2 Department of Arts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ofree1@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 본 논문은 2021년도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Received(July 26, 2022), Review Result(1st: August 19, 2022, 2nd: September 5, 2022), Accepted(October 14, 2022), Published(October 31, 2022)



© 2022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el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homology hypothesis and the omnivorous hypothesis of cultural capital through a literature research, and based on this, the importance and role of cultural capital in the rapidly changing current era after COVID-19 pandemic.

keyword : cultural-artistic activity, quality of life, cultural capital, homology & omnivorous hypothesis

1. 서론

인간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며, 그런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문화예술 활동은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류는 현재와 같은 문명 수준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인 석기시대부터 곳곳에 거대한 암벽화나 동굴벽화를 남겨 놓았다. 엘렌 디사나야케(Ellen Dissanayake)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적 감각을 추구하고 즐기려는 인간의 성향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데 그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며, 즐거움을 많이 느낄수록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이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었다는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서구에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여가 활동이 단순한 여유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 주도적 생활양식이자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정착되었다 [2]. 조금 뒤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와 대체휴일제가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인 여가사회로 진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8%가 여가 활동을 삶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특히 여가 시간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경향이 트렌드를 넘어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꾸준히 증가해 2006년 62.4%에서 2018년에는 81.5%로 크게 늘어났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고상한 문화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인식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위의 조사와 같이 최근 들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매우 대중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관람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내면에 예술 작품이나 미적 대상을 감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작품 감상 후에 느껴지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가 삶의 활력소이자 재충전의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양한 예술품을 관람하려는 동기가 높아지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날은 2020년 3월 11일이지만,

‘COVID-19’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인 유행병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20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고통은 경제적 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서부터 친밀한 사람들과의 교류 단절, 야외 활동의 감소, 대인갈등, 막연한 두려움 등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소에 영화 관람을 비롯해 미술관, 박물관, 각종 전시회, 음악회 및 예술 공연 관람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누리왔던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삶의 질이 하락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모아놓은 금전적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평소에 다양한 영역의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단순한 관람 활동에 치중했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잘 대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화 자본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시한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은 경제 자본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계급 구분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용어였다. 문화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5]. 먼저, 개인의 문화적 능력이나 기량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훈련의 결과로 몸으로 익힌 체화된 문화 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이다. 두 번째는 책이나 그림, 조각, 악기처럼 실체를 가진 객관화된 문화 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과 같은 공식적인 고등 교육기관을 통해 획득하는 제도화된 문화 자본(institutional cultural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류계층은 높은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하류계층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취향의 구별 짓기를 통해 계급을 유지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6]. 이처럼 자기들의 계급과 일치하게 상류계층은 고급 취향의 문화를 소비하고 하류계층은 범속한 대중문화를 소비한다는 주장을 상동성 가설(homology hypothesis)이라 한다. 이와 달리 하류계층은 고급 취향의 문화를 소비하지 않지만 상류계층은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대중문화까지 폭넓게 소비한다는 주장을 잡식성 가설(omnivorous hypothesis)이라 한다.

2. 문화 자본의 상동성 가설과 잡식성 가설

부르디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문화 자본의 수준이 은밀한 차원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상류계층은 고급문화를 소비하며 하류계층은 대중문화를 소비함으로써 문화적 취향을 기반으로 계급 사이의 구별이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최선희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서양 고전음악을 전공한 젊은 여성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 자본이 계급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은밀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7]. 서양 고전음악을 전공한 여성들은 부모의 경제 자본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부터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객관화된 문화 자본)에서 장시간의 수련 과정(체화된 문화 자본)을 거치면서 기량을 연마해 대학이라는 제도화된 문화 자본을 획득한 후 자기들의 계층에 어울리는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계층을 공고화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비교를 통해 한국 상류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문화 자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연결망을 공고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8]. 그 결과 한국 상류사회에서 고급 음식이나 와인에 대한 지식과 예절이 새로운 문화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의 연구는 서구 사회에 비해 계급분화와 고착화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른바 상류층 사회의 구성원들은 세련되고 차별화된 문화 전략을 통해 자기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문화 자본의 수준에 따라 클래식, 국악, 경음악, 팝송의 네 가지 음악 장르의 선호에서 계층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9]. 소득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중가요보다 클래식과 경음악, 팝송을 선호하고, 본인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클래식과 팝송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고급문화나 대중문화를 소비한다는 상동성 가설이 항상 입증된 것은 아니다.

국내보다 앞서 부르디외의 이론을 수용한 미국 사회학계에서 프랑스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그의 이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같은 서구사회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300여 년이 넘는 계급 구조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 미국 사회는 고유한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귀족적 전통이나 고급문화 전통이 부재하며, 평등주의와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높은 지리적 이동률과 사회과학 설명에서 인종이라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유럽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사회이다. 이렇게 변동과 저항, 역사적 우연성이 서로 뒤엉켜 작동하는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을 강조하는 부르디외의 개념은 너무 정적(static)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 또한 미국에는 하나의 지배 문화가 존재한다기보다 각 개인이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다양한 취향 문화가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회계층 내에서도 같은 문화형태를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하며, 소비유형에서도 전통적인 사회계층 집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1].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고급문화에 관심도 없고 즐길 수 있는 역량도 없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고급 취향의 문화를 향유할 뿐

만 아니라 세련된 대중문화도 즐길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잡식성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12]. 미국에서도 고급문화는 상류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스포츠처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유용한 폭넓은 문화 소비양식은 계급에 관계없이 인기 있는 덕목이다.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넓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중상층 이상 계층에서는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문화 자본이 높을수록 폭넓은 문화 소비양식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문화 활동인 영화에 대한 선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 자본의 양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영화 장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또한 문화 자본이 높은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고전음악이나 대중음악 공연 관람과 관련한 정보 생산과 소비, 교류 등에서 더욱 적극적이었다 [14].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여성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상층계급-고급취향’, ‘하층계급-대중취향’과 같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계 구조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축을 기준으로 문화 취향의 구조가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15]. 즉, 한국적 맥락에서는 구별 짓기를 이해함에 있어 계급 이외에 성별, 연령, 거주지역과 같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하여 과연 한국인들의 음악 취향이 계급을 기준으로 분화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16]. 한국 사회에서 부르디외 문화 자본론의 상동성 가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음악 취향은 계급에 의해 제한된 영향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 성별, 종교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취향은 계급 이외의 다양한 배경 요인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짐에 따라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계급과 문화취향이 일치한다는 상동성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보다는 잡식성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3. 문화 자본과 문화예술 활동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소재를 다루는 문화예술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어도 소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상미술처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재나 클래식 음악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문화예술은 사전 교육과 향유 체험 축적에 따른 취향의 형성과 선호도가 소비의 핵심이 된다 [17].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급문화는 문화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나 지식, 경험의

양 등이 지속적 소비로 이어지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급문화의 소비는 대체로 문화 자본이 높은 상류계층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잡식성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문화 자본이 높은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고급문화만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자본은 자신에게 적절한 문화 장르를 선택하고 해독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18]. 따라서 문화 자본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연예술 관람을 비롯해 스포츠 활동, 영화 관람, 음악 감상 등의 문화예술 상품은 곧바로 실용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기존의 재화 및 서비스와 달리 경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선택되고 소비되는 경험재로서 경험과 과정 자체의 즐거움이 목적인 특성이 있다 [19]. 이처럼 반복적인 경험과 그와 관련된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문화 자본은 다양한 관련 활동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문화 자본은 예술작품 감상 후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속설처럼 예술 작품 감상에서는 관람 대상의 질 못지않게 관람자의 내적 동기나 성격 특성, 과거의 문화예술 경험 같은 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자존감, 성격 특성, 미술관 방문 횟수, 미술 지식 등이 삶의 만족도 및 작품 감상 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연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20]. 연구 결과 가계의 월 수입이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 경험(미술관 방문 횟수, 미술 지식)이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연구는 문화 자본과 전혀 관련 없는 맥락에서 수행된 것이었지만, 개인의 체화된 문화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과거의 미술 경험이 작품 감상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 번 형성된 문화 자본은 노년기에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자본이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도 문화 자본이 높을수록 관여하는 문화 활동 영역이 다양하고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1].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년층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인생 2막과 관련된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은퇴 이후 노인들은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인간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자존감 저하와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단순한 수동적 여가 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 인간관계의 회복과 삶의 즐거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낌으로써 주관적 만족감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노인들의 문화 자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이루어진 상속된 문화 자본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과 대인관계,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획득된 문화 자본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빠르게 노령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문화 자원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문화예술 활동들은 예비지식이나 사전경험 없이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활동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외에 경제적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악기 연주나 발레, 승마와 같은 활동들은 개인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외에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활동들이다. 그 외에 장기간의 미술 교육, 오페라 감상, 해외 문화예술 탐방 등의 활동도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예술 취향으로 분류되는 활동들을 특정 계층이 자기들의 신분을 대변하고 다른 계층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이 말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익힌 세련된 문화예술 취향들은 하류계층은 물론이고 벼락부자들조차 감히 넘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류계층이 자기들의 신분을 확고히 하는 진입 장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며, 때로는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문화예술 활동들은 사전경험이나 예비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경험과 지식의 전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아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초등교육처럼 상대적으로 입시의 압박감이 낮은 시기에 문화예술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향후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초등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할 서울 지역 교사들의 문화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2].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47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른 일반인 집단에 비해 더욱 풍부한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 소양을 높게 평가하며, 고급문화 활동을 선호하거나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예술작품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현대에 들어서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다양한 미적 상품이 증가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점차 미학화 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소비 패턴도 경제성과 기능성의

강조에서 문화적 요소와 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도 경험과 쾌락에 중점을 두면서 전통적이고 고급문화 취향적인 소비 형태들조차 즐거움을 창출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외면 받게 되어 점점 더 대중성을 띄게 되었다. 이처럼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소비에서 계층 간 구분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계급 재생산의 숨은 기제로 간주되었던 문화 자본의 역할도 예전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문화 자본 관련 연구를 폭넓게 개관한 논문에서 이상수와 이명진 [5]은 문화 자본의 개념화와 조작화에 있어서 비일관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 취향이 개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문화 자본으로서의 문화 취향이 사회 자본과 같은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개인의 행복감이나 정신 건강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로 유사한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 낸 일종의 문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교류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취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극복해야 할 기존 연구들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SNS가 사람들의 중요한 활동 무대로서 그곳에서 제2의 자아가 활동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와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활동을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활동들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일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상현실(VR) 시스템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으면 코로나 시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은 제조업 강국을 벗어나 문화 강국으로서 여전히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 개인이 세련된 문화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한 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고급문화의 영역은 깊고도 넓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

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하며, 고루한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적 수련의 기회도 다차원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화 자본이라는 용어는 계급의 재생산과 문화 취향의 분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원래의 학술적 의미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계급 재생산에 관심을 기울여 온 교육사회학 분야는 물론이고 레저관광 분야, 경영학, 언론학 분야로까지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5]. 따라서 문화 자본을 단순히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총체적 능력’으로 재정의한다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 그만큼 풍성한 학술적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E. Dissanayake, *Homo Aestheticus: Where Art Comes From and Wh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5.
- [2] S. S.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Leisure Motive and Involve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Commitment to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Management, Woos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2.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http://www.mcst.go.kr/kor/s_policy/research/researchView.jsp?kid=21022413565287257.html, (accessed November 1, 2021).
- [4] M. I. Choi, G. O. Lee, J. W. Park, “The influence of cultural capital on the experiential satisfaction of art gallery visits and post-visit intention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31, no. 2, October 2017, pp. 54-73, doi: 10.16937/jcp.31.2.201708.54.
- [5] S. S. Lee, M. J. Le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studies on cultural capital in Korea”, *Culture & Society*, vol. 21, October 2016, pp. 339-380, doi: 10.17328/kjcs.2016.21..007.
- [6] P. Bourdieu, *Distinctions: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7] S. B. Choi, “High-class women and cultural capital in consolidating high-class boundary: Korean females majoring in western classical music”,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6, no. 1, December 2002, pp. 113-144.
- [8] H. S. Choi, “High society network and cultural capital”, *Society & History*, vol. 66, February 2004, pp. 118-150.
- [9] M. H. Chang, “Cultural capital and style of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5, no. 3,

June 2001, pp. 51-81.

- [10] J. D. Wacquant, "Toward a reflexive sociology a workshop with Pierre Bourdieu", *Sociological Theory* vol. 7, Spring 1989, pp. 26-64, doi: 10.2307/202061.
- [11] D. Crane, *The Production of Culture: Media and the Urban Arts*, London: Sage, 1992.
- [12] R. A. Peterson, R. M. Kern,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 5, October 1996, pp. 900-907, doi: 10.2307/2096460.
- [13] H. Y. Lee, M. H. Chang, "Cultural capital and its impact on the omnivorousness of movie pre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2, no. 1, February 2008, pp. 62-95.
- [14] E. M. Kim, S. R. Suh, "Profiling cultural omnivore in Korea: quantity and breadth of cultural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Studies*, vol. 55, no. 5, October 2011, pp. 205-233.
- [15] S. K. Han, K. Y. Park, "Grammar of distinc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1, no. 2, April 2007, pp. 211-239.
- [16] J. H. Yang, "An empirical test of the thesis of class-differentiated cultural tastes: Focusing on the musical tastes of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5, October 2009, pp. 170-209.
- [17] R. A. McCain, "Taste formation", in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R. Towse, Ed.,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3, pp. 445-450.
- [18] H. Roose, A. Stichele, "Living room vs. concert hall: Patterns of music consumption in Flanders", *Social Forces*, vol. 89, no. 1, September 2010, pp. 185-207, doi: 10.1353/sof.2010.0077.
- [19] R. W. Belk,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5, September 1988, pp. 139-168, doi: 10.1086/209154
- [20] J. Y. Ahn, K. H. Min, M. H. Kim, "The effect of art experience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rt Education*, vol. 56, 2019, pp. 47-64, doi: 10.35657/jae.2019.56.003
- [21] H. J. Kweon, H. O. Park, "Cultur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mong Korean baby boom generation: from a cultural welfare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3, January 2008, pp. 535-553.
- [22] H. J. Jun, S. J. Kim, S. B. Choi, "Study on the cultural capital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area", *Survey Research*, vol. 14, no. 3, November 2013, 157-190.
- [23] H. J. Kim, Y. H. Kim, "A Study On the Role of Cultural Capital in promot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2021 NCISS Winter Conference, December 29-30, 2021, Jeju Korea, pp. 101-105